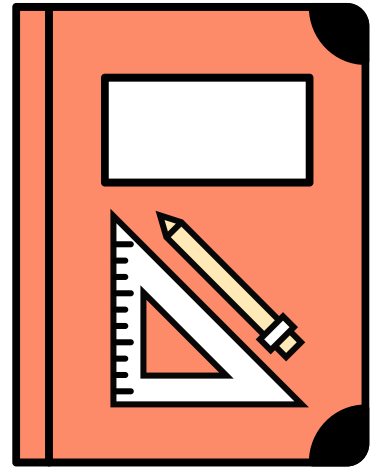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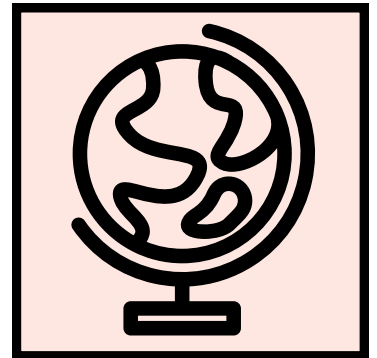


**자본주의가 그려낸
새로운 세계지도
읽는 법**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

교사용



독후 활동 노트

작성자: 이동민 교수님
난이도: 중·고등학생

책을 읽기 전에

◆ ‘자본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본주의란 무엇인지 자유롭게 써 보세요.

◆ 자본주의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 자본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얼마나 중요할까요?

책을 읽으며

◆ 자본주의의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 선으로 이어 보세요.

상업자본주의 (중상주의)

- 자유경쟁과 기업 논리 중시
- 방대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지출 비판
- 낙수효과: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는 저절로 좋아짐
- 정부의 책무: 화폐, 즉 통화의 공급 조절

산업자본주의 (고전자본주의)

-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 강조
- 복지, 공공사업 등에 대규모 정부지출 시행
- 정부 기관의 비대화, 비효율적 재정 운용 등과 같은 부작용

수정자본주의 (케인스주의)

- 재정혁명: 주식회사 설립, 조세제도 개혁, 국채 발행 등
- 해상무역 네트워크의 발달, 시민계급의 성장과 더불어 발전
- 본격적인 자본주의라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다분함

신자유주의 (신고전주의)

- 자유시장경제: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조절
- 산업혁명의 결과, 시장 규모가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
- 복지 부문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시피 했음. 극심한 빈부격차와 같은 부작용 발생

◆ 네덜란드의 원양 무역 진출이 네덜란드 재정혁명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 영국이 재정혁명을 완성하고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지리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 대륙횡단철도와 파나마운하는 미국과 세계 자본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유라시아와 인도양에 진출하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책을 읽고 난 후

◆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와 세계 지리를 어떻게 바꾸어 왔을까요?

◆ 자본주의가 지닌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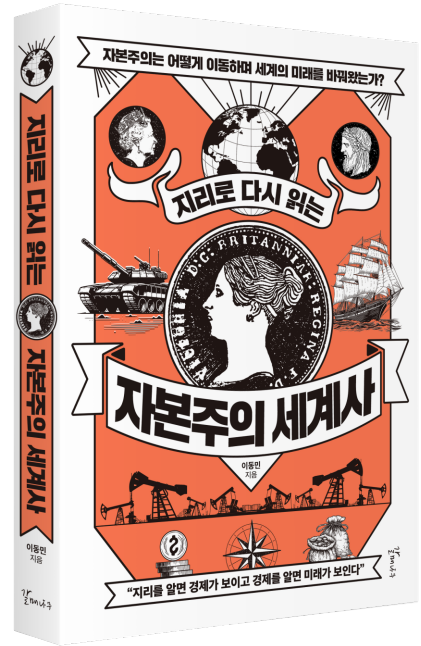
◆ 인류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어떤 점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면 좋을까요?

[책 소개]

세계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나 변화해 왔는지, 지리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다!

025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을 염려하는 가운데, 트럼프레이션(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초래하는 물가상승)이 다시금 고개를 들 것이라 예상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평균 원 달러 환율이 IMF 때 추세를 따라가면서 그때의 악몽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 우리가 시시각각 경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른 나라 정치 상황을 살피는 것은 가격, 이자, 환율, 경기 등 자본주의 환경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으며 매우 깊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모르고선 이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없으리라는 위기감도 느낄 터다.



전작 《기후로 다시 읽는 세계사》에서 지리학자 특유의 시선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안을 제공한 저자 이동민 교수가 이번에는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에서 '지리 문해력'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역사를 새롭게 살핀다. 특히 최근 지리학계에서 주목하는 '다중스케일적 접근(multiscalar approach, 지표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다양한 스케일의 다층적이고도 상호 관련적 초점에서 파악하려는 지리적 관점)'으로 자본주의의 역사를 전방위적으로 훑어본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동하며 세계를 바꿔왔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대항해시대에는 세상 거의 모든 부(富)가 에스파냐로 향했지만, 곧 네덜란드로 이동해 갔고 한 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변방의 섬나라였던 영국이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다. 하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며 전 세계에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던 대영제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그 지위를 미국에 넘겨준다. 한번 중주국이 영원한 중주국은 아닌 셈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냉전시대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은 탈냉전시대인 오늘날 중국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하는 유럽 여러 국가의 도전을 받고 있다. 러시아도 과거에 비해 지리적으로는 축소되었을지언정 천연가스와 식량자원으로 유럽 사회를 압박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 ◆ 최초의 주식이 네덜란드 청어 어장에서 비롯했다고?
- ◆ 화려한 메트로폴리스는 왜 불평등 양극화의 진원지가 되었나?
- ◆ 미국은 어떻게 대륙횡단철도로 세계 패권을 바꾸었을까?
- ◆ 베트남은 어쩌다 기후위기의 블랙홀이 되었나?
- ◆ 한국형 신자유주의는 과연 장밋빛 미래일까?

이처럼 세계경제의 중심이 어디에서 어디로, 왜 이동했는지 파악함으로써 자연스레 경제 패권의 다음 향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역사가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또 수정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변신을 거듭해 온 자본주의의 행보와 맞물려 있으며, 외형상으로는 성장을 이어가지만 다중스케일적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이 시스템이 결국은 세계 경제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다중스케일적 속성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없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할 공정한 분배나 도덕적 정의란 공허한 이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경제와 부의 흐름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리적 질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의미 있는 통찰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